확 젊어진 KCC·삼화페인트 핫한 댄스·패션 콜라보 통했다

창고처럼 보이는 낡은 건물 앞에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선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각종 도구를 손에 든 채 차에서 내린 이들은 현대무용단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멤버들. 대형 롤러와 붓, 페인트 통을 손에 든 이들은 경쾌한 음악에 맞춰 시원한 춤사위를 선보이며 빛바랜 목제 출입문과 타일 벽, 철제 캐비닛 등 창고 안팎에 새로운 색을 입히기 시작한다.

건자재·도료회사 KCC가 최근 선보인 유튜브 '컬러레인저스 광고'의 주요 내용이다. KCC 관계자는 "공개 두 달 만인 지난 2일 기준 조회 수가 750만 회를 넘길 정도로 인기가 많다"며 "기업 광고 채널인데도 '구독'을 누르고 싶게 한다는 젊은 층 댓글이 달리는 등 반응이 좋다"고 4일 말했다.

페인트업계가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 층인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략을 강화하고 나섰다. 젊은 감성의 유튜브 광고를 제작하거나 패션기업과 손잡고 협업(컬래버레이션) 제품을 출시하는 식이다.

국내 페인트 1위 기업 KCC는 컬러레인저스 광고를 제작하며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에 안무 창작부터 배경 음악, 의상과 소품 등을 전적으로 맡겼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다양한 소재에 바르기 쉬운 페인트라는 점을 뮤직비디오를 통해 재미있으면서도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실험적인 디지털 광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KCC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를 모델로 촬영한 유튜브 광고의 한 장면. KCC 제공

MZ세대 셀프 인테리어 열풍
건축·산업용 도료 한계 넘어
젊은 소비자와 직접 소통 나서

삼화페인트, 스트리트 패션 출시
1주일 만에 완판 릴레이

올해로 창립 75주년을 맞은 삼화페인트는 의류업체와 협업에 나섰다.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크리틱과 협업해 작업복 느낌의 바지와 재킷, 티셔츠, 앞치마, 모자 등을 최근 출시했다. 모두 삼화페인트 제조 현장에서 직원이 실제 입는 작업복을 사용해 제작했다. '삼화(三和)' 한자 로고와 마스코트도 그대로 살렸다. 결과는 대성공. 온라인 쇼핑몰 무신사를 통해 판매를 시작한 제품들은 출시 1주일 만에 총 17종 가운데 13종 제품이 품절됐다.

페인트업계 3위 삼화페인트는 젊은 층과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삼화TV를 통해 '투톤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다. 실내 공간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색상의 페인트로 칠한 곳에서 가수가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는 행사다. 비비, 릴보이, 지소울 등이 참여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삼화페인트라는 이름을 젊은 소비자에게 더 많이 알리기 위한 참신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인트 회사들이 MZ세대 공략에 나선 것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테리어 DIY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장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긴 어렵지만 소비자 직접 판매 비율이 3년여 전 전체의 1% 미만에서 최근 10%가량으로 높아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페인트업계 관계자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나 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페인트를 구매해 가구와 소품 등을 인테리어하는 젊은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코미팜 뇌종양 치료제 '美 희귀의약품' 지정

악성신경교종 치료제 '코미녹스'
美 FDA 시판허가 신청 계획
암 통증 치료제 개발도 순항중

코미팜이 개발하고 있는 뇌종양 치료제가 미국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희귀의약품이 되면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임상 3상시험을 끝내지 않고도 시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4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코미팜이 악성신경교종 치료제로 개발 중인 '코미녹스'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악성신경교종은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교세포에 암이 생기는 질환이다. 뇌종양 중 가장 흔한 종류로 알려져 있다.

코미팜은 비소화합물로 만든 신약 후보물질인 코미녹스가 어떤 암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14개 전이암을 대상으로 실험 중이다. 주사제가 아니라 먹는 약으로 개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코미녹스의 강점 중 하나는 뇌혈관장벽(BBB) 투과율이 98%에 달한다는 것"이라며 "악성신경교종 등 뇌로 전이된 암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미녹스 임상 현황

적응증	국가	단계
교모세포종	호주	임상 2상 중
	한국	임상 2상 중
14개 전이암	미국	임상 1·2상 계획 승인
암 통증 치료제	대만	임상 2상 중

자료: 코미팜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는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이나 별다른 치료제가 없는 악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신약 허가 신청 비용을 면제받을 뿐 아니라 독점 판매 기간(7년)도 일반 신약보다 2년 길게 받는다.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코미팜은 2023년께 미국에 시판 허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한국과 호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2상 결과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 회사는 2019년 호주에서 교모세포종을 대상으로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아 환자에게 투약하고 있다. 국내에선 서울대병원을 통해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 2상 결과가 나와도 서류 작업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신청 시점은 2023년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양용진 코미팜 회장은 "호주와 한국 임상 2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이 데이터를 근거로 미국 FDA에 시판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미팜은 코미녹스를 항암제뿐 아니라 암 통증 치료제로 개발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암 통증 치료제로 쓰는 것에 대한 임상은 대만에서 2상을 진행 중이다. 이 역시 내년에 임상 결과를 받아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회장은 "코미녹스가 암 통증 치료제로 허가받으면 부작용이 있는 마약성 진통제의 상당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복약할 수 있도록 먹는 약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류머티즘 약·항말라리아제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능"

한남식 英 케임브리지대 교수
AI로 후보물질 추려내

한국인 과학자가 현재 여러 의약품에 쓰이고 있는 1900여 개 성분을 일일이 분석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에 적합한 2개 물질을 추려냈다.

4일 의학계에 따르면 한남식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팀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의약품 성분 1917개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이 중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 가능한 약물 2개를 선정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6월호에 발표했다. 2개 물질은 류머티즘 치료제로 쓰는 '설파살라진'과 말라리아 치료제로 사용하는 '프로구아닐'이다.

연구진은 총 5단계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먼저 빅데이터 기술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연구 문헌과 데이터를 분석해 코로나19가 감염되는 148개 경로를 찾았다. 이후 1917개의 승인 약물 중 이 경로를 제어할 수 있는 약물 200개를 선별했다. 여기에 포함된 '알테수네이트'(신풍제약이 개발 중인 피라맥스의 주성분) 등 40개 성분은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30개는 연구자들이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는 물질이다. 한 교수는 "AI로 선별한 물질의 35%가 코로나19와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번 연구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팀은 이렇게 걸러낸 200개 중 바이러스의 복제와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126개)만 골라냈다. 이 가운데 일산화질소 생성을 막는 약물만 추려냈더니 46개가 남았다. 일산화질소는 바이러스가 유전물질을 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진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안전하면서도 임상을 진행하지 않는 5개 약물(설파살라진, 프로구아닐, 아데메티오닌, 알로글립틴, 플루사이토신)을 선정했다. 5개 후보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여부를 살펴보는 '마지막 라운드'를 통과한 약물은 설파살라진과 프로구아닐이었다.

한 교수는 "안전성이 확보된 코로나19 잠재적 치료제를 발굴했다는 데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며 "바이러스 복제 경로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만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원 기자

고영, 뇌수술용 의료로봇 삼성서울병원에 공급

고영테크놀러지는 삼성서울병원과 뇌수술용 의료로봇 '카이메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카이메로는 고정밀 광학센서가 환자 머리의 해부학적 표면 구조·위치를 측정해 수술이 계획된 뇌심부 목표 부위 및 주위 해부학적 구조와의 관계를 계산한다. 이를 토대로 수술 부위에 최단 경로로 도달해 시술의 정확성과 수술 성공률을 높여주는 침대 부착형 의료로봇이다.

고영은 이 제품에 대해 2016년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 및 판매 승인을 받았다. 그 후 2년간 국내 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했고 작년 10월 국내 최초로 한 대학병원에 공급돼 다양한 뇌수술에 활용됐다. 올 4월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로봇수술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정일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카이메로는 약물 치료가 어려워 수술이 필요한 많은 뇌질환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영은 앞으로 뇌수술 이외 다른 신경외과 수술로 카이메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의약품관리국(NMPA) 품목 허가, 유럽 CE 인증,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해 전 세계 의료로봇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각오다. 김동현 기자

아이·엄마 함께 쓰는 플루케 '친환경 매니큐어'

으뜸중기

크라우드펀딩 3000% 달성

'어린아이가 발라도 무해한 매니큐어.' 매니큐어 브랜드 '어도러블'은 온라인에서 이렇게 통한다. 물을 용매로 해 냄새와 피부 자극, 손톱 손상도를 낮춘 제품이다. 친환경성까지 갖춰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은 채식주의자(비건)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는 평가다.

어도러블을 개발한 건 생명공학과 출신인 박영란 대표(사진)다. 그는 독일의 머크, 영국의 크로다와 같은 외국계 화학기업 한국법인에서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일을 했다. 자연히 원료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어도러블

2019년 1월 '플루케'라는 회사를 차리고 8개월에 걸쳐 개발한 어도러블을 내놓았다. 첫선을 보인 곳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었다. 누적 달성률이 3000%에 달하고 후속 제품을 내달라는 문의가 빗발치는 등 결과가 성공적이었다. 박 대표는 "자녀에게 주기 위해 아이 엄마가 구입한 경우가 많을 걸로 예상하며 소비자층을 분석했는데 스스로 쓰려고 구입한 성인이 훨씬 많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 이유로 제품의 친환경성을 첫째로 꼽았다. 어도러블은 동물성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물 등 자연 친화적인 원료만 넣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제품이 순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를 간파한 박 대표는 같은 해 10월 패키지와 색상을 바꾼 '성인용 어도러블'을 내놨고 매출이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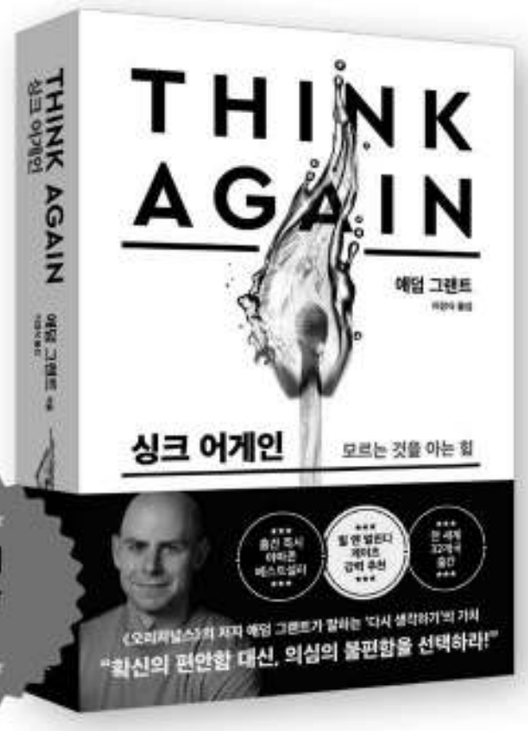
어도러블의 주요 구매층은 2040 여성이다. 혼자서 사용하는 소비자도 있고, 아이와 함께 쓰는 이들도 많다. 공통적으로 '독한 화장품'을 기피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박 대표는 "임산부나 손톱 손상이 심한 소비자처럼 일반 매니큐어를 쓰기 어려운 사람이 어도러블을 찾는다"며 "하반기 자극성이 적은 핸드·네일크림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진출도 준비 중이다. 윤희은 기자

★전화로 2개월 속성★
■ 초보기업인 영어회화/러/베/중어/2개월 속성!!
■ 초중고대생 영어SP(말하기),WT(쓰기)2개월 속성!!
1주 무료수업 ICC35년전통!! 02)730-9595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2차)
본 회사는 2021년 7월 2일 주주총회 결의에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해산절차를 진행중인바 본 회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5일
주식회사 평화개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611비-2호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
청산인 이 명 화

해 산 공 고 (1차)
당 회사는 2021년 06월 30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이 결의되어 현재 해산절차를 진행 중 인바, 당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들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상법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05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플러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로26번길 29
청산인 김 재 준

합병공고
주식회사 천건설("갑")과 유한회사 지아이건설("을")은 2021년 7월 1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사원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 및 사원은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7월 05일
"갑" 주식회사 천건설 대표이사 김 문 숙
"을" 유한회사 지아이건설 대표이사 유 춘 미

제36기결산공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무상태표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천지개발 대표이사 김 식 문 회계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오리지널스》 애덤 그랜트의 5년 만의 신작
《싱크 어게인》 모르는 것을 아는 힘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정을 의심하라!"
와튼스쿨 최연소 종신교수이자 도발적 경영사상가 애덤 그랜트가
지금껏 갖고 있던 모든 믿음과 지식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밝힌다!
✔ '다시 생각하기'는 새로운 통찰의 기술이다
✔ '다시 생각하기'는 소통과 이해의 기술이 된다
✔ '다시 생각하기'로 버릴 시점을 아는 것이 지혜다
★★★★★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
★★★★★ 빌 앤 멀린다 게이츠 강력 추천 ★★★★★
★★★★★ 전 세계 32개국 출간 ★★★★★